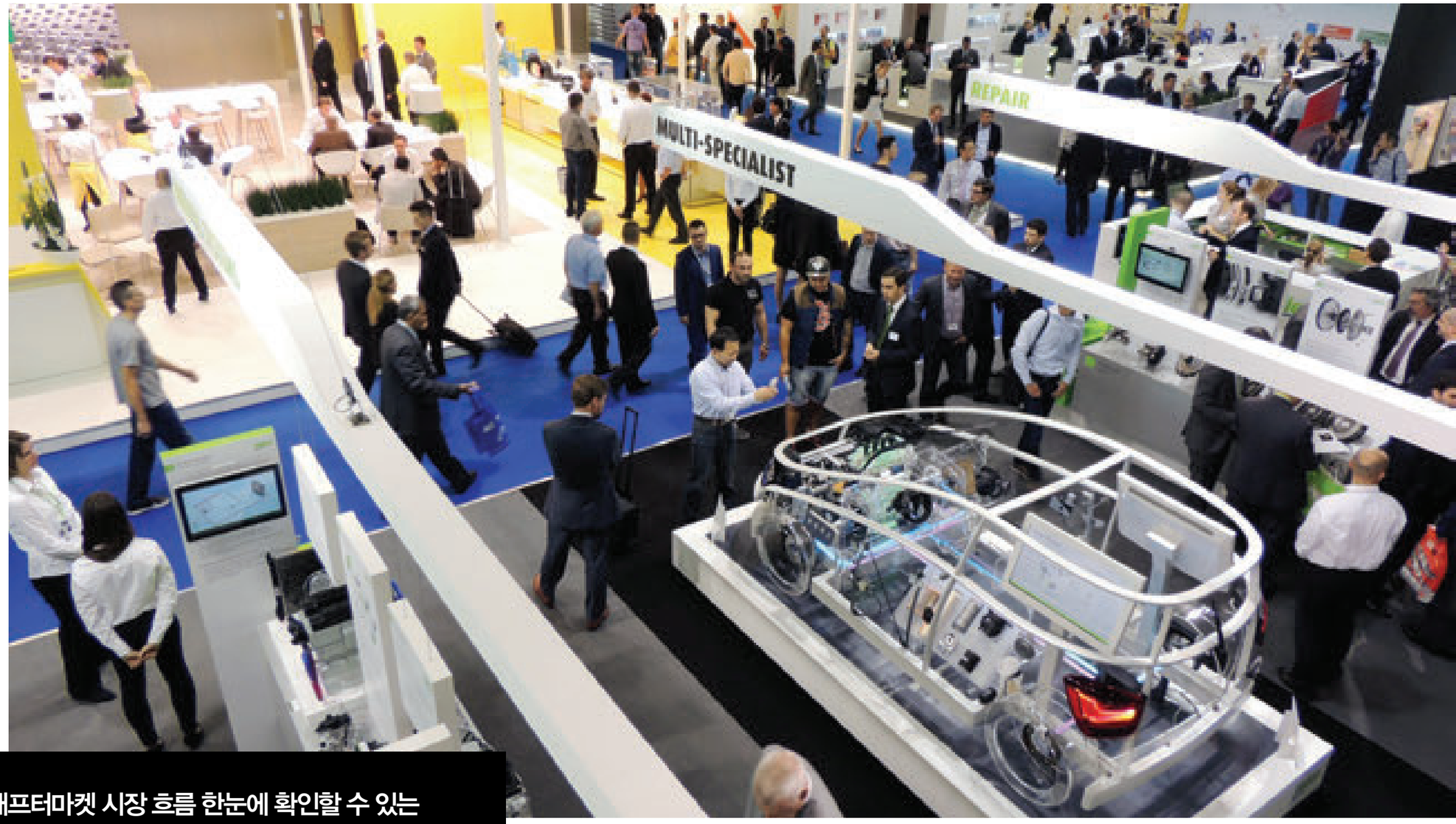
제23회 아우토메카니카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 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 아우토메카니카에서는 그동안 가장 많은 업체가 참가했던 독일이 처음으로 783개 업체가 참가한 중국에 참가업체 1위 자리를 내주었다



미래의 애프터마켓 시장 흐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23회 아우토메카니카

제23회 아우토메카니카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 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30만 5천㎡ 전시면적 위에서 71개국 4천631개 업체가 참가했다. 올해에는 중국업체가 독일업체보다 더 많이 참가해 '거대공룡 중국의 존재감'을 실감케 한 전시회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전시회 117개 업체보다 24개 업체가 늘어난 141개 업체가 올해 전시회에 참가했다

유영준 「본지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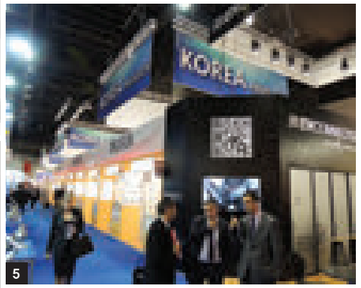
제23회 아우토메카니카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 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30만 5천㎡(약 9만 2천평, 일산 킨텍스 1전시장 5개 홀 기준 약 6배 규모) 전시면적 위에서 71개국 4천631개 업체가 참가했다. 지난 2012년 74개국 4천597개 업체였던 것과 비교해 올해에는 참가국 수는 줄었지만 참가업체 수는 오히려 34개 업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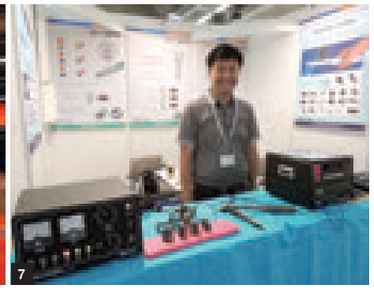
특히 아우토메카니카는 독일에서는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애프터마켓 전시회로, 독일업체가 707개에 이르지만 해외에서 참가하는 업체는 3천924개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한다.

한국기업 141개 업체로 역대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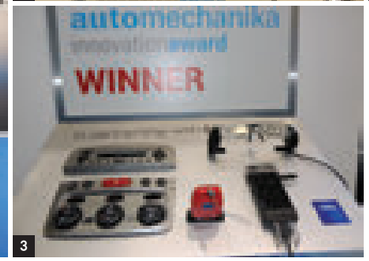
아우토메카니카는 부품업체의 참가가 가장 많다. 부품 & 구성품업체는 2천267개, 전자 & 시스템 업체는 532개로 전체 참가업체의 60%가 부품관련 업체다. 이어서 수리 & 정비분야 업체가 926개로 점차 정비분야 관련업체의 참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액세서리 & 튜닝업체도 521개, 서비스 스테이션 & 세차분야 291개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모든 분야의 업체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아우토메카니카에서는 그동안 가장 많은 업체가 참가했던 독일(707개 업체)이 처음으로 중국업체(중국 783개)에 참가업체 1위 자리를 내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거대공룡 중국의 급부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완성차업계뿐 아니라 자동차부품, 정비기기 등 애프터마켓에서도 중국은 이제 '큰 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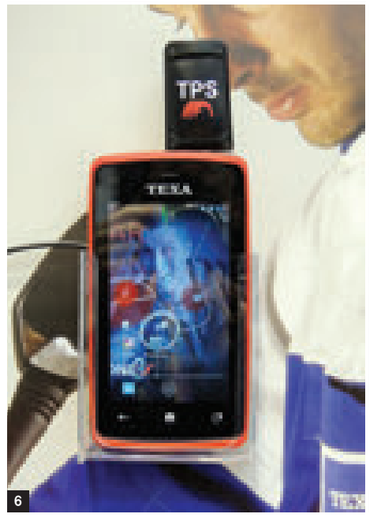




1 보쉬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넓은 부스를 꾸몄다
2,3 불스원은 이번 전시회에 처음 참여해 유럽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다
4 변속기 전문업체인 ZF가 경량화된 새시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5 KOTRA 한국관에는 모두 71개 업체가 참가했다
6 카맨인터내셔널은 출시예정인 AUTO i 700 시리즈를 미리 선보였다
7 지오토는 슬레노이드 밸브 클리너를 집중 홍보했다
8 모터툴은 CRDI 테스트 벤치를 소개했다
9 SK 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부품사업팀도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1 콘티넨탈 VOD의 REDI 타이어 공기압 경고 센서가 부품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3 정비 & 진단기 분야에서 최고상을 받은 텍사의 BT-200 안경은 엠손과 협업을 통해 개발한 핸즈프리 증강현실을 이용한 특수 안경이다. 작업자가 차 안에서 정비작업 데이터를 안경을 통해 투시된 정보로 읽을 수 있다
4 올해 아우토메카니카 기술혁신상에는 120개 제품이 선정되었고 그중 7개 분야에서 최고상을 받은 수상자들
5,6 유럽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진 TPMS 센서를 진단하는 진단기. 기존 소형 스캐너 USB 단자에 삽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7 기술혁신상 우수상을 받은 판넥스 타이어 실런트. 최대 8mm 구멍까지 밀봉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타이어 실런트이다
8 리퀴몰리도 신제품을 출시했다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중국계인 대만의 471개 업체를 합하면 무려 30%에 가까운 중국계 업체가 이 전시회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전시회 117개 업체보다 24개 업체가 늘어난 141개 업체가 올해 전시회에 참가했다. 코트라(KOTRA)가 중심이 된 한국관에는 71개 업체가 참가했고 경남지역 업체들이 주축이 된 동남권산업공동관에는 15개 업체가 별도로 전시관을 꾸며 유럽시장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외에도 G-Auto와 모터툴, HK 테크놀로지, SK 네트웍스 부품사업팀이 별도로 전시관을 만들어 해외 시장 공략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또한 최근 독일의 엔진오일 전문회사인 비졸과 한국 판매 파트너사로 계약을 맺은 불스원이 처음으로 아우토메카니카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홍보해 큰 관심을 모았다.

유럽시장 TPMS 진단기에 관심 높아

아우토메카니카에서는 매회 마다 '내일의 애프터 세일을 위한 아이디어' 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 최근 자동차 기술이 더욱 복잡해지고 또한 제조기술이 발전해나가면서 부품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기술의 변화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우토메카니카 전시회이기도 하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이 전시회의 '아우토메카니카 이노베이션 어워드(기술혁신상)' 이벤트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후보작으로 선정된 120개 제품은 독일업체 66개와 해외업체 54개로 그 중 7개 제품이 우수상(Winner)을 받았다. 부품 & 구성품, 전자 & 시스템, 액세서리, 수리 & 진단기, 수리 & 정비, IT & 매니지먼트, OE 제품 & 서비스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된 올해 기술혁신상에서 이탈리아의 텍사(TEXA)가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유럽시장에서 의무화되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 시스템(TPMS) 도입에 따른 타이어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유럽연합에서 TPMS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타이어 장착 및 교체 작업이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압측정

시스템을 갖춘 차에 설치되는 센서와 측정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TPMS 센서를 취급할 때 자동차 정비업소의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콘티넨탈은 새로운 VDO TPMS PRO(프로) 서비스 장치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센서가 원래 설치되어 있던 장치이거나 또는 그 후 교체되었는지 관계없이 무선 기술을 사용해 TPMS 센서를 판독한다.

VDO TPMS 프로는 타이어 압력, 온도, 배터리 상태 또는 센서 ID와 같은 중요한 센서 정보를 순식간에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VDO TPMS PRO는 더 많은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고성능 TPMS 장비는 데이터 판독뿐 아니라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애프터마켓 센서의 프로그램을 짜거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올해 기술혁신상을 받은 콘티넨탈 VDO의 TPMS 센서인 REDI-센서와 OE 센서처럼 사전 프로그래밍 센서의 경우에 이러한 작업은 불필요하다.

VDO TPMS PRO는 또한 OBDI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즉 장치는 차에 TPMS 센서를 "재인식"시키고 TPMS 진단고장 코드를 판독하거나 시스템 특정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그 결과 VDO TPMS PRO는 TPMS 센서와 관련된 모든 정비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VDO TPMS PRO에는 4.3인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다. 명확히 구조화된 다국어 메뉴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탐색 버튼 덕분에 장비 작동법은 이해하기 쉽다. 게다가 바코드 스캐너로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수집한 데이터는 자동차 ID에 할당하고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는 USB, 무선랜 또는 SD 카드를 통해 PC로 전송할 수 있다.

콘티넨탈 외에도 이탈리아 텍사(TEXA)도 올해 11월 유럽시장에 내놓을 예정인 TPMS 솔루션을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했다. TPMS 센서만 측정하고 검사할 수 있는 TPS 진단기와 TPS 키(Key)를 USB 단자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휴대용 멀티 유틸리티 진단기인 AXONE S TPS를 동시에 내놓았다. AXONE S TPS는 OBD 단자에 접속해 다른 진단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TPMS를 진단할 수 있다.

보쉬 가장 넓은 부스 꾸며

아우토메카니카에서도 정비 수리분야 업체들의 참가수가 늘어나면서 모두 6개 홀에 관련업체들이 치열한 제품 홍보전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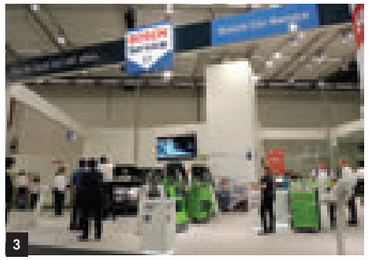
정비 & 수리 전시관에서는 보쉬가 가장 넓은 전시관을 꾸몄다. 서비스, 부품, 진단기 등으로 나눠 전시관을 꾸민 보쉬 자동차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지난 2012년 미국의 SPX 서비스 솔루션을 인수한 이후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함께 공동 전시관을 꾸몄다. SPX 서비스 솔루션은 진단 장비뿐만 아니라 특수 공구, 소프트웨어를 주력하고 있는 업체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보쉬 전시관 바로 옆에 SPX 브랜드인 로빈에어와 OTC 공구도 함께 전시해 보쉬 애프터마켓 사업부의 위상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변속기 전문업체로 많이 알려진 독일의 ZF는 변속기가 아닌 경량 설계로 개발된 각종 부품을 이노베이션 전시물을 한곳에 모아 눈길을 끌었다.

기존 브레이크 페달보다 50% 이상 가벼워진 브레이크 페달과 경량 설계 기술로 개발되어 기존 스틸제품보다 12~15% 가벼워진 샤시 등 최근 자동차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경량화 기술에 대한 ZF사의 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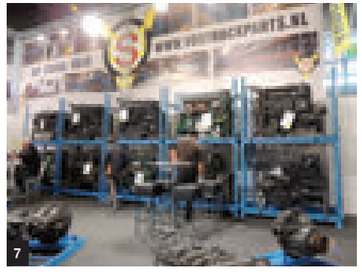

3

4

1 독일의 프리미엄 오일 전문회사인 비졸도 새롭게 디자인된 제품을 선보였다
2 비졸 임원진과 함께 기념촬영한 필자
3 보쉬 카 서비스도 독립 부스를 꾸며 각종 보쉬 서비스 솔루션을 소개했다
4 지난 2012년 보쉬 애프터마켓 사업부에 인수된 SPX 서비스 솔루션 브랜드도 보쉬관 옆에 전시관을 마련했다
5 이탈리아 버틀러도 타이어 탈착기 등 신제품을 홍보했다
6 피코 스코프의 필 서비스 사업개발 매니저를 이번 전시회에서도 만났다
7 포스트럭부품사는 스카니아, 볼보트럭의 중고 부품과 엔진을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5

6


7

보쉬 전시관에서 주최측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오일과 윤활유 분야 약 100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석유수출기구(OPEC)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현재 매일 9천만 배럴(1배럴=159리터)을 소비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1억850만 배럴을 매일 소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전시회측은 매년 윤활유, 장비, 보조기구, 소모품 및 재활용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참여업체가 대거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리퀴몰리, 비졸, 울프 오일, WD-40, 윈스 등 외에도 한국에서 불스원이 처음으로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불스원과 한국 독점 공급회사로 계약을 맺은 독일의 프리미엄 오일 전문회사인 비졸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마르체로 아산드리는 "100개 나라를 목표로 현재 60개국 이상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0홀에는 미래의 교통수단(Mobility of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12개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하이브리드, 전기, LPG, 천연가스 등 대체 파워 트레인을 집중 선보였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 및 충전 시스템 외에도 모터, 배터리 관리, 에너지 공급 및 충전기술 등 다양한 제품과 함께 이들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펼쳐졌다.

특히 이곳에서는 독일 LPG 협회 관련 회사들이 출품한 LPG 엔진과 자동차들이 눈길을 끌었다. 독일 프린스(Prins)사는 유럽시장에서 인기 높은 모델인 기아 쏘울에 다이렉트 리퀴맥스 2.0 LPG 엔진을 얹어 관람객들의 발걸음 멈추게 했다.

아우토메카니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있다. 바로 '불법복제 방지(against copying)' 캠페인이다. 지난 2002년 보쉬, 델파이, 덴소, ZF, 리퀴몰리, 소낙스 등 53개 글로벌 부품업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자동차부품업체연맹(VERI)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제품 및 상표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회원사들 중심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바코드, QR 코드 등을 통해 진품인지 복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이 단체는 진품과 복제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직접 스캐너나 스마트 폰으로 제품을 구분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아우토메카니카에서는 정비분야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독일 전역에서 자동차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아카데미(TAK)는 갤러리아 홀 중앙에 오펠의 암펠라 HV 전기차를 전시해 놓고 전기차 수리에 대한 교육안내를 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진행되는 세미나인 아우토메카니카 아카데미에서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커넥티드(Connected) 자동차, CO_2 배기가스 감축, e-모빌리티 등 확대되어 가는 자동차 전자분야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줄을 이었다. CarTech

1

2

3

4

1 독일 LPG협회 회원사인 프린스가 기아 쏘울에 다이렉트 리퀴맥스 2.0 LPG 엔진을 얹어 관심을 모았다
2 아스트라사는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미니 리프트를 소개했다
3 핀란드의 콩스사는 분리되는 이색적인 서리제거용 스크래퍼를 내놓았다 솔루션 브랜드도 보쉬관 옆에 전시관을 마련했다
4 이 전시회에서는 불법 복제 제품을 추방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진품과 복제품을 함께 전시해 이해를 돕고 있다